

서울시 구별 지역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:

거주기간과 지역특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

나수영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)

이지연 (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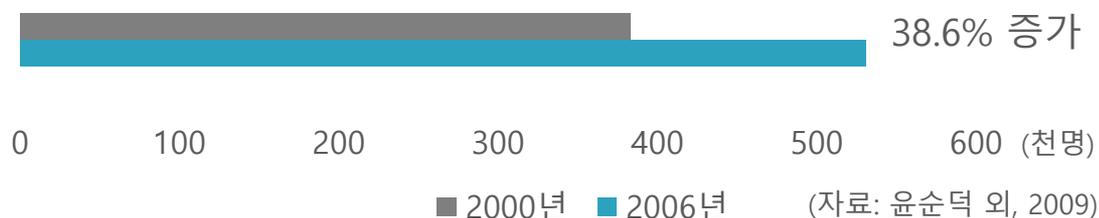
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- 노인은 은퇴와 제약된 이동성으로 인해 거주지 주변으로 삶의 영역이 제한,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**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큼** (Lawton, 1977; Whitley & Prince, 2005)
- 노년기의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, 심리적 요인,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목 (곽인숙, 2013; 박기남, 2004; 배나래, 박충선, 2009)

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맥락,
거주지역의 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

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노인인구의 거주지 이동 (한 해 동안 읍면동의 경계를 넘은 이동)



-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나, 노인인구의 거주지 이동이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한 주소지에서 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 (윤순덕 외, 2009)
- **노인의 거주기간과 행복의 관계**를 검증하고자 함

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- 거주기간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노인이 **'어느'**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
- 서울은 각 자치구마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물리적 환경, 복지정책에 차이가 있음(김윤희, 조영태, 2008)

➤ 서울시의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따라
거주기간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?

노인의 행복

- 행복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**주관적인 감정과 평가**(Diener, 1985; Kraut, 1979), 삶의 만족도와 긍정·부정정서로 구성(Diener, 1985)
 - 행복, 기쁨, 만족 등이 삶에 활력을 주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과 장수에 기여(Ryff & Singer, 1998), **노인에게 행복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**
-

거주기간과 노인의 행복

- 한 거주지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이웃과 더 강한 **사회적 지지**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임(Campbell & Lee, 1992)
 - 노인이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
 - 노인이 이웃과 왕래를 자주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(이혜자, 전동일, 2011)
 - 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큰 관련이 없음(Russell, 2009)
 - 노인이 한 거주지에서 오래 살면서 이웃과 사회적 유대가 강해져도, 그것이 **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**
-

거주기간과 노인의 행복

-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 **더 긍정적으로 평가**하고, **더 강한 애착**을 가짐 (Hunter, 1974)
 -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높고, 우울 수준은 낮음 (Ye & Chen, 2014)
 - 노인이 한 거주지에서 오래 살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해져 **더욱 행복**해질 것으로 예상
-

거주기간과 거주지역의 특성

- 노인이 **어느**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함.
라이프코스 관점에 따르면,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**위험의 축적**(accumulation of risk)에 해당함(Riley, 1989)
- 개인이 지속적으로 환경적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**장기적 피해**(long term damage)를 입을 수 있음(Power et al., 1991)

➤ 노인이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
거주기간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

거주지역의 특성과 행복

•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

- 경제적 수준: 지역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제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 (김윤희, 조영태, 2008; Firebaugh & Schroder, 2009; Yen & Kaplan, 1999)
- 이웃신뢰: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로,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. (Putnam, 1993)
국내에서는 이웃신뢰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(최미영, 광현근, 박현식, 2014)
- 안전: 거주지역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이 악화 (Lorenc et al., 2012),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스트레스가 높아짐 (Gee & Takeuchi, 2004)

• 지역의 물리적 특성

- 거주지역에 의료시설,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 (이유진, 김의준, 2015)

연구방법

- **분석자료**

-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
- 2012년 서울시 통계자료
- 오마이뉴스가 유대운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범죄 통계자료(2012)

- **분석대상**

2013 서울서베이에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 4,521명

측정도구 - 개인 수준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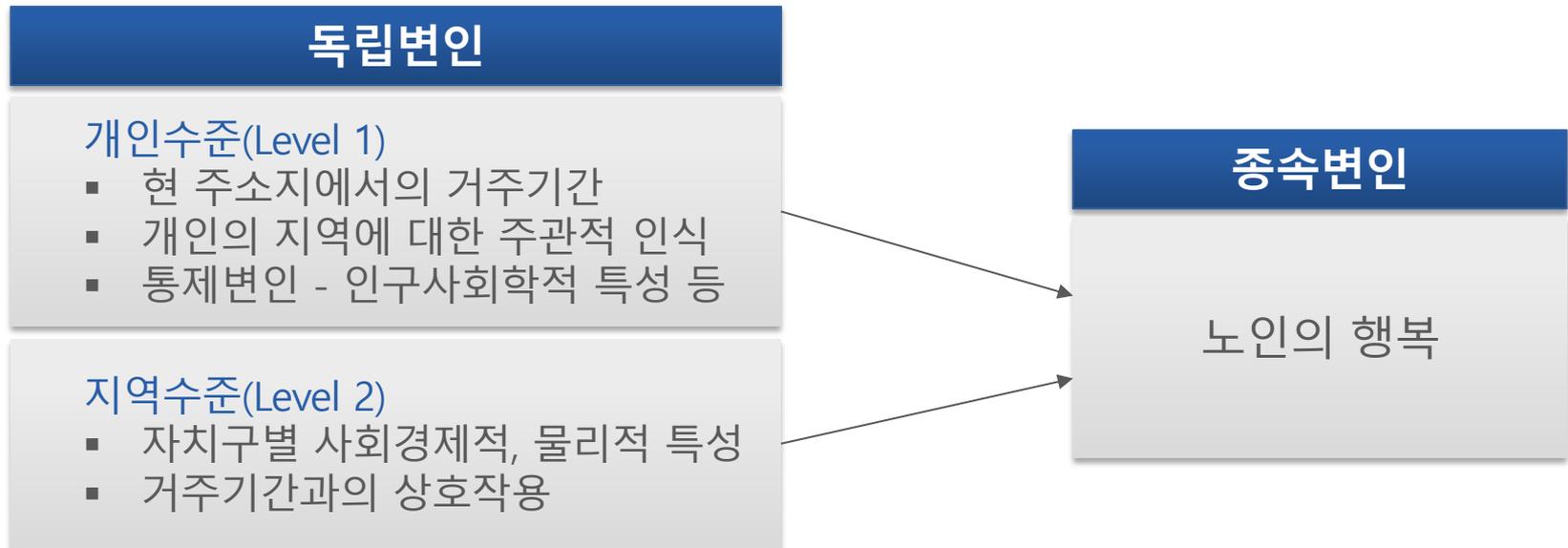
변수	측정	출처
행복	“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?” 0-100점 → 0-10점으로 코딩	
현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	1년 단위	
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	1 - 5점(매우 만족)	
서울시 교통이용 만족도	1 - 5점(매우 만족)	
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	0 - 100점	2013 서울 서베이
연령		
성별		
학력	초, 중, 고, 대졸 이상	
월 가구소득	100만원 단위	
배우자 유무		
정기적 사회활동의 수		

측정도구 - 지역 수준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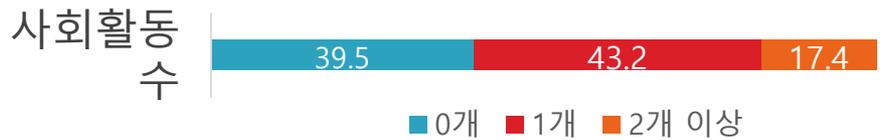
변수	측정	출처
재정자립도	자체수입/일반회계 예산액*100	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, 2012
교통사고 발생건수		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, 2012
5대 범죄 발생건수	인구 10만명 당	유대운 민주당 의원실, 2013
이웃에 대한 신뢰	각 자치구별 평균, 1 - 5점(매우 신뢰)	2013 서울서베이
의료기관 수	종합병원의 개수	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, 2012
공공도서관 수	공공도서관+어린이도서관	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, 2012
종합복지시설 수	종합복지회관의 개수	서울시 복지정책과, 2012

분석방법

- 위계적 선형모형(Hierarchical Linear Model)을 활용한 분석
-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간의 상관 - 지역내 자기상관을 피하기 위함
(Bryk, & Raudenbush, 1992)



서울시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(N=4,521)



서울시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

(N=4,521)

변수	평균	표준편차
현주소지 거주기간(年)	12.4	9.4
보행환경 만족도	3.6	0.7
교통수단 만족도	3.6	0.6
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	72.1	9.6

현재 거주 중인 자치구 (백분율)

최고 빈도	%	최저 빈도	%
강서구	8.6	광진구	2.6
양천구	6.6	용산구	2.5
노원구	6.2	성동구	2.5
중랑구	5.1	종로구	2.4
성북구	5.0	도봉구	2.3

서울시 자치구별 지역특성 (N=25)

변수	평균	표준편차
재정자립도	42.3	15.4
교통사고 발생건수	1577.6	571.4
5대범죄 발생건수/10만명	691.5	331.4
이웃에 대한 신뢰	3.2	0.2
종합병원 수	2.3	1.5
공공도서관 수	4.9	2.4
종합복지회관 수	3.9	2.1

서울시 구별 지역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

	무조건모형	
	회귀계수	표준오차
고정효과		
노인의 행복	65.40 ***	0.72
무선효과		
지역 간 변량	11.92	
지역 내 변량	166.42	
χ^2	332.50	
p-value	<.001	
ICC	0.067	

- 노인의 행복 전체 변량 중 6.7%가 자치구별 차이로 설명됨
- 일반적으로 ICC값이 0.05이상이면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봄 (Heck & Thomas, 2009)

서울시 구별 지역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

고정효과	연구모형	
	회귀계수	표준오차
노인의 행복	46.69 ***	3.25
연령	-0.27 ***	0.04
성별	0.47	0.39
유배우자	4.08 ***	0.42
월가구소득	1.39 ***	0.11
교육	0.78 ***	0.22
정기적 사회활동 수	0.69 **	0.23
보행환경 만족도	1.28 ***	0.27
교통수단 만족도	1.14 ***	0.33
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	0.34 ***	0.02
현주소지 거주기간	-0.05 *	0.02
재정자립도	0.16 *	0.07
교통사고 발생건수	-0.00	0.00
5대범죄 발생건수/10만명	0.00	0.00
이웃에 대한 신뢰	5.22	3.30
종합병원 수	0.29	0.41
공공도서관 수	-0.49	0.26
종합복지회관 수	1.05 **	0.30
<현주소지 거주기간 상호작용>		
재정자립도	0.00	0.00
이웃에 대한 신뢰	0.30 *	0.13
교통사고발생건수	-0.00	0.00
5대범죄 발생건수/10만명	-0.00 ***	0.00
종합병원 수	0.01	0.02
공공도서관 수	0.04 ***	0.01
종합복지회관 수	-0.03 **	0.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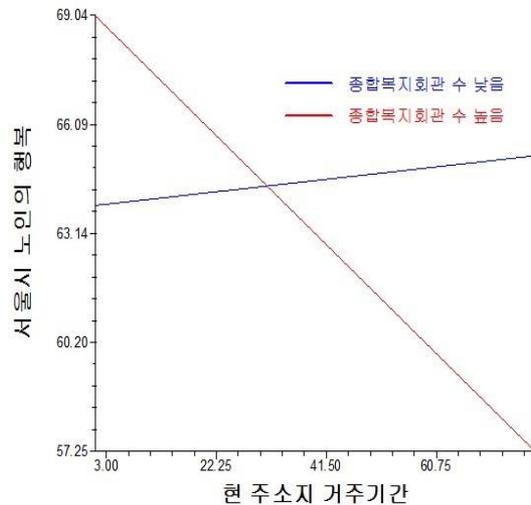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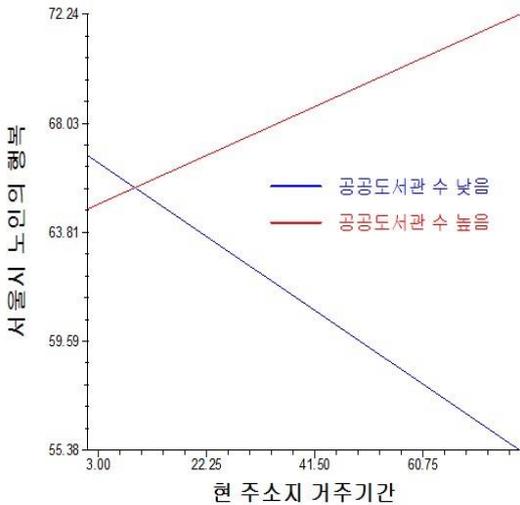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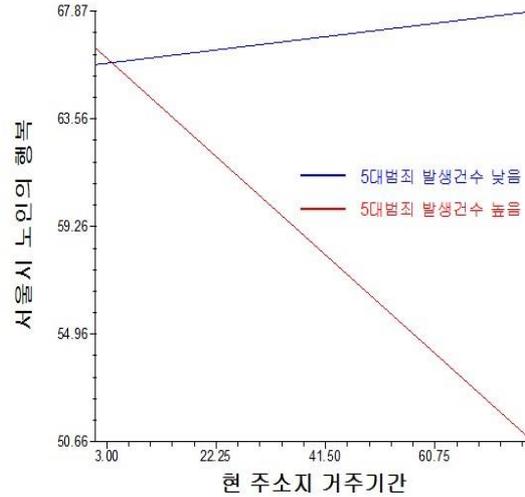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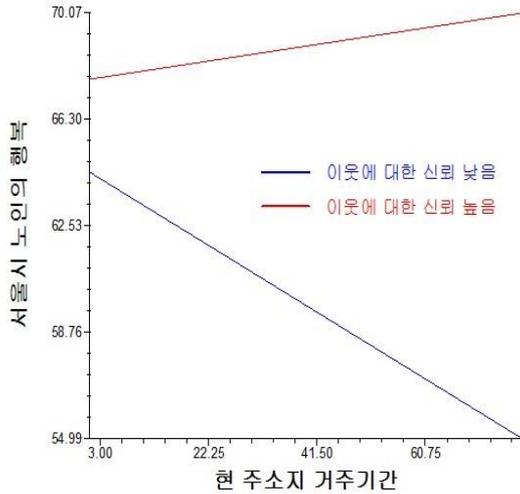
무선효과	
지역 간 변량	3.43
지역 내 변량	132.58
χ^2	93.18
p-value	<.001
ICC	0.025

서울시 구별 지역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

고정효과	연구모형	
	회귀계수	표준오차
노인의 행복	46.69 ***	3.25
보행환경 만족도	1.28 ***	0.27
교통수단 만족도	1.14 ***	0.33
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	0.34 ***	0.02
현주소지 거주기간	-0.05 *	0.02
재정자립도	0.16 *	0.07
교통사고 발생건수	-0.00	0.00
5대범죄 발생건수/10만명	0.00	0.00
이웃에 대한 신뢰	5.22	3.30
종합병원 수	0.29	0.41
공공도서관 수	-0.49	0.26
종합복지회관 수	1.05 **	0.30
<현주소지 거주기간 상호작용>		
재정자립도	0.00	0.00
이웃에 대한 신뢰	0.30 *	0.13
교통사고발생건수	-0.00	0.00
5대범죄 발생건수/10만명	-0.00 ***	0.00
종합병원 수	0.01	0.02
공공도서관 수	0.04 ***	0.01
종합복지회관 수	-0.03 **	0.01

- 서울시 노인이 현 거주지에서 오래 거주했을 수록 덜 행복함
-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, 자치구에 종합복지회관 수가 많을수록 더 행복함

서울시 구별 지역특성이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



- 이웃신뢰가 낮거나, 범죄 발생이 빈번한 구에 노인이 오래 거주할수록 행복의 수준이 낮아짐
- 공공도서관이 적거나, 종합복지회관이 많은 구에 노인이 오래 거주할수록 덜 행복함

논의

- 서울시 노인이 현 주소지에서 **오래 거주했을 수록 덜 행복**하였음
 - 사회경제적, 물리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에 **축적되는 위험의 행복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**가 강하기 때문
 - 자치구의 종합복지회관의 수는 노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,
종합복지회관이 많은 자치구에서 **오래 거주할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짐**
-

논의

-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거주분포가 높고, 공단지역 등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로 건립(보건복지부, 1998)
 -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다는 것은 **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장기간 여러 환경적 위험에 노출**된다는 점을 뜻함
 -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이 행복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음
-

결론

- 노인의 행복에 지역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,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
 - 각 자치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**범죄예방 정책**을 추진하여, 보다 안전하고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
 - 범죄예방설계(CPTED) 사업과 같은 범죄예방 정책을 시도,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뒤따르는 것이 필요함
-

결론

- 지역사회 내에서 **이웃간의 신뢰**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 참여프로그램을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
 - 개인 수준에서 노인이 지역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,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데에 도움
 - 문화시설의 종류가 서울시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
-

참고문헌

- 곽인숙, 2013, "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", 『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』, 51(1): 1-16.
- 김윤희.조영태, 2008, "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", 『한국인구학』, 31(1): 1-26.
- 머니투데이, 2013, "범죄 많은데 주민은 느긋... 강남.서초의 '역설'",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906557 에서 2015년 10월 2일 인출.
- 박기남, 2004, "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", 『한국노년학』, 24(3): 13-29.
- 배나래.박충선, 2009, "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", 『한국노년학』, 29(2): 761-779.
- 윤순덕 · 김은자 · 강방훈 · 김상범 · 윤희정 · 정일영, 2009, "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지역간 이동 특성: 16세기 특·광역시도별 2000~2006년 비교를 중심으로", 『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』, 20(2): 193-204.
- 이유진.김의준, 2015, "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: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", 『한국지역개발학회지』, 27(1): 65-88.
- 이혜자 · 전동일, 2011, "농촌·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", 『한국노년학』, 31(2): 419-437.
- 최미영.곽현근.박현식, 2014, "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: 노인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", 『노인복지연구』, 66: 307-329.
- Bryk, A. S., and Raudenbush, S. W., 1992, Hierarchical linear models: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. Thousands Oaks, CA:Sage Publications, Inc.
- Campbell, K. E., and Lee, B. A., 1992. "Sources of personal neighbor networks: social integration, need, or time?", Social forces, 70(4), 1077-1100.
- Diener, E. D., Emmons, R. A., Larsen, R. J., and Griffin, S., 1985, "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",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, 49(1): 71-75.
- Firebaugh, G., and Schroeder, M. B., 2009, "Does your neighbor's income affect your happiness?",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, 115(3): 805-831.
- Gee, G. C., & Takeuchi, D. T., 2004, "Traffic stress, vehicular burden and well-being: a multilevel analysis", Social science & medicine, 59(2): 405-414.
- Hunter, A. 1974. Symbolic Communities. Chicago: University of Chicago Press.
- Kraut, R. E., 1979, "Two conceptions of happiness", The Philosophical review, 88(2): 167-197.
- Lawton, M. P., 1977, "An ecological theory of aging applied to elderly housing",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, 31(1): 8-10.
-

참고문헌

- Lorenc, T., Clayton, S., Neary, D., Whitehead, M., Petticrew, M., Thomson, H., and Renton, A., 2012, "Crime, fear of crime, environment, and mental health and wellbeing: Mapping review of theories and causal pathways", *Health & place*, 18(4): 757-765.
- Power, C., Manor, O., and Fox, A. J., 1991, "Health and class: the early years", London: Chapman Hall.
- Riley J. C., 1989, "Sickness, recovery and death: a history and forecast of ill-health", Basingstoke: Macmillan.
- Russell, D., 2009, "Living arrangements, social integration, and loneliness in later life: The case of physical disability", *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*, 50(4): 460-475.
- Ryff, C. D., and Singer, B., 1998. "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", *Psychological inquiry*, 9(1): 1-28.
- Ye, M., and Chen, Y. 2014. "The influence of domestic living arrangement and neighborhood identity on mental health among urban Chinese elders", *Aging & mental health*, 18(1): 40-50.
- Yen, I. H., and Kaplan, G. A., 1999, "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 and risk of death: multilevel evidence from the Alameda County Study", *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*, 149(10): 898-907.

<http://stat.seoul.go.kr/>(서울특별시, 서울통계)
교통사고조사자료,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, 2012
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, 문화체육관광부, 2012
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규정, 보건복지부, 1998
서울서베이(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) 자료, 서울시(정보공개정책과), 2013
서울통계연보. 서울시(정보공개정책과), 2012
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, 안전행정부, 2012
